

# 행복한 노후 어디가 좋을까?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를 넘게 된다. 즉 인구 5명 당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불교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본지 설문 조사 결과 불자들이 불교계 복지시설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

우가 많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계에는 어떤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불교계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점검했다. 또 노인들이 아름다운 회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자원봉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 불교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방향

1998년 5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후 민간 자본으로 실버타운을 건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버타운 건립이 활성화되고 있다. 실버타운이란 건강이 대체로 양호한 노인들이 한 건물에서 함께 살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물론 여가, 취미활동까지 즐길 수 있는 주거 공간이다. 노년기 인구의 증가, 그리고 '누구나 늙는다'는 보편타당성의 원리,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싶다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버산업의 한 종류로 등장한 것이다.

이런 사회적 추세에 맞춰 2000년 이후부터 불교계에서도 불자들이 여생을 회향할 수 있는 실버타운

유하고 있다는 것도 성라불국토의 큰 장점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경성남도 양산시 웅상을 매곡리 천불사 부모은중선원(원장 보원, 055-365-1463)은 월회비와 별도의 관리비 없이 운영되는 시설로 부산과의 인접성과 대구로 병원의 연계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대구시 동구 덕곡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살선원(원장 효진, 053-983-3677)은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 노인들의 욕구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들 불교계 실버타운의 중요한 특징은 시설 내에 법당을 따로 마련해 불자들의 만년 수행활동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스님들이 함께 살고 있어 노년의 정신적 귀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것이 노년층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보살핌 안에서 삶을 정



실버타운에서는 다양한 레포츠 활동도 가능하다. 청평 대양실버타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청평 대양실버타운



성라불국토에 마련된 서예실. 사진제공=가평 성라불국토

## 최근 실버타운 6곳 잇따라 설립 시설내 법당 운영, 신행활동 도와

설립에 뛰어 들고 있다. 현재 불교계에는 성라불국토, 태양실버타운, 천불사 부모은중선원, 연꽃마을 등 6개의 실버타운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태고종 사회복지재단에서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위치한 태양실버타운(원장 이숙인, 031-585-6696)의 경우, 한달 생활비가 30~70만원으로 이용료가 저렴한데다 텃밭도 있고, 게이트볼 등의 레포츠까지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또한 회원들의 건강상태나 심리·정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어르신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에 있는 성라불국토(원장 정인자, 031-585-3323)의 경우도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인근 숲을 이용한 산림욕장과 산책로, 유기농으로 과수·채소 재배단지 등을 보

## 일선 4~5명 함께 사는 그룹홈 인기 미래 노인복지 주거형태로 부상

리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줬 불교계 실버타운에 대한 불자들의 선호도를 높이는 이유다.

그러나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불자들의 노년 생활을 책임지기에는 현재 건립된 불교계 실버타운의 숫자가 너무 적다. 의료경영전문 회사 플러스클리닉의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주거노인복지시설, 즉 실버타운은 불교계 시설을 포함해 전국에 약 50여개 안팎이다. 현재 건립 중인 시설들을 고려할 때 점점 늘어나는 추세기는 하지만 현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하지만 실버타운이 무조건적으로 미래 노인복지 주거 형태로 맹신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판장 지만 스님은 "실버타운은 시장경쟁 원리로 고행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대규모화, 상업화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며 "실버타운 보다는 5명

안팎의 노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룹홈'이 미래 노인 시설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룹홈의 경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 현재 널리 시행하고 있는 제도. 부양할 사람이 없는 노인들을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살게 하고, 상근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1명 두어 노인 케어를 일반 가정집과 최대한 가깝게 하는 제도다.

그룹홈은 대규모 시설에 비해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으나 널리 퍼지지는 못했다.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홍보·체제 구축 미비 등이 그 이유다. 김강진 기자

## 불교노인복지 맞춤형서비스가 핵심

앞으로 불교계는 노인복지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현재까지 양적 팽창에 주력했다면, 이제 노인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소득에 따라, 주거 형태에 따라, 욕구에 따라 노인 케어 서비스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무료 양로 시설과 요양시설,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이 필수적인 반면

중산층 이상은 만년의 귀의처를 찾고, 실버타운과 같이 편안하게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복지 형태가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맞춤형서비스로 가고 있음에 따라 소규모 자체 시설을 많이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앞서 언급했던 그룹 홈의 경우, 노인 세대만으로 구성할 것인지 3세대 통합형이 더 바람직한지 불교사회복지 연구소 등을 활용한 전반적 연

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룹홈에 적합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 모델을 설정해서 충분한 관심과 검토를 거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해야 실패 확률이 줄어든다. 그룹홈이 차세대 주거복지 형태로 각광받고는 있지만 아직 그 연구 실태는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단에서는 불교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본·말사 간의 전달체계 정비, 물론 예산 지원 등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노년층이 여유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에 거점을 둔 사람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일·놀이·봉사' 취향따라 고르세요

1996년 인구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66세 이상 노년층의 77.3%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노년층 대다수가 '집'을 주요 자산으로 꼽고 있고, 자기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시설 입소 노인이 늘어날 추세지만, 재가 노인들의 비율도 절반 정도는 유지될 전망이다. 재가노인들을 위한 불교계의 끊임없는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

### ■ 재가 노인복지프로그램

#### # 취미 살리고 건강 돌보고

거주지가 정해져 있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여기에는 전국에 있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들이 대표적이다. 불교계에서는 약 30여개의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준비해 재가 노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노인복지관 서비스는 건강 상담실 및

불교계에서는 서울노인복지센터 내에 마련돼 있는 노인취업훈련센터가 대표적이다. 노인취업훈련센터에서는 노년 활동 전문 연구소인 '활기찬 미래 연구소'를 통해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정기적 취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서예, 한글, 일본어 강사 등 교육형 일자리에서부터 주유원, 도우미직, 환경미화원까지 다양하다.

또 서울 성북노인복지관의 노인일자리 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성북노인복지관은 노인건강도우미, 숲생태해설, 구연동화가 등을 양성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다.

#### # 자원봉사활동으로 보람찬 생활

봉사는 나누는 삶의 넉넉함으로 노년기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나이를 먹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 밖에도 거동이 가능한 재가노인들은 복지관에서 컴퓨터 영어 등의 기능을 습득할 수도 있고, 노래교실 등을 통해 예능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도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들을 위해서는 밑반찬 배달 서비스, 세탁·복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불자들의 봉사활동 현장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노년층 봉사자의 숫자가 적지 않다. 봉사활동 현장에서 노노살들의 헌신적인 봉사는 타 봉사자들의 귀감이 되기도 한다.



나이는 봉사활동의 장애가 될 수 없다. 사진은 침술봉사를 통해 삶의 보람을 얻는 한 봉사자의 모습.

최근에는 노인들끼리 봉사 모임을 만들거나, 복지관에서 봉사대를 발족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인, 은평노인복지회관 은빛봉사단이 대표적인 예다.

#### # 일하고 싶어요

이제 노년기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도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노년기가 되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노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가까운 지역 노인복지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노인복지관 안내부터 간단한 거리 청소, 문화 계도 캠페인, 사찰과의 연계 등 통한 문화제 설명, 생태계 설명 등 노인들이 봉사할 거리는 다양하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 ● 노인자원봉사자 안내 기관

단체	주소	전화번호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02)739-9501
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성북구 종암1동	(02)929-7950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02)385-8205
조계종사회복지재단자원봉사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라이온스 빌딩	(02)723-0131
정도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정도회관	(02)587-8990
천태종 사회복지재단	서울 강남구 관문사	(02)575-3467
전수현인자원봉사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남빌딩	(031)969-0108
대구 남구자원봉사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053)473-1199
자비신행회	광주광역시 동구 (구)지원초등학교	(062)234-2732

謹賀新年 佛紀 2550年

#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



◆ 서울 실상선원 1000일 영가 천도법회 봉행  
◆ 순국선열 천도대제 봉행

현재접수중

약사 제일 영험도량 실상선원  
봉사와 무료복지관이 있는 천축사  
기도성취도량 용암사

선원장 성환  
주 지 무 타 자 운  
총 무 곽동훈

대 중 일 동

- 실상선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93번지 02)745-8503
- 천축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041)734-2680
- 용암사 경북 청송군 현동면 월마리 산 49-3 054)873-3607